소공동체 모임순서 (복음나누기 7단계)

+ 성호경
+ 이달의 시작 성가 (287장 성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 노래)
+ 출석확인과 인사 나눔
+ 소공동체 기도문
+ 복음 나누기 7단계 (이달의 복음: 마태 13,1-23)

1단계 : 주님을 초대한다.
- 한 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 성경 본문을 2번 읽는다.
- ....복음 ....장을 펴주십시오.(참가자들이 본문을 찾을 때까지 기다린 후)
- 어느 분이 ...장 ...절에서 ...절까지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새기며 고요히 되뇝니다.

3단계 : 성경 본문 중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세 번씩 외쳐주십시오.
- 어느 분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4단계 :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5단계 :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 나누기가 끝난 후 "함께하는 복음 묵상"을 읽는다.

6단계 :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고, 실천을 다짐한다.
- 지난달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 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니다.
- 이번 달에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각자)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정합시다.

※'말씀이 우리와 함께'를 공부하고, 공지사항, 건의사항, 차기장소 결정을 한다.

7단계 : 자유롭게 기도한다. (손을 잡고~)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 소공동체가
+ 영광송 및 성호경

진행자가 기억해야 할 사항

① 복음나누기 7단계에 제시된 그대로("한 두 분이...") 각 단계를 읽어주십시오.
② 참가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3단계, 5단계에서는 진행자도 할 수 있으나, 첫 발언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먼저 발언하게 하십시오.
③ 마지막 발표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발언하게 되면 진행자가 마치 정답을 주는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④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십시오.
⑤ 각 단계에서는 참가자들의 참여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느긋하게 기다리십시오.

함께하는 복음 묵상

마태 13,1-23 씨 뿌리 사람의 비유 **7/13 연중 제15주일**

예전에 내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만 하더라도 지금과는 달리 성당 문을 24시간 개방하였다. 그래서 한밤중이라도 성당에 들어갈 수 있었다. 물론 지금이야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언제라도 성당에 들어가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그 시절이 그리운 것은 사실이다. 신자 분들 중에서도 간혹 우리 성당만큼은 언제든지 기도 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하면 어떠냐고 제안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했다. 어쨌든 24시간 언제든지 성당에 가서 기도 할 수 있었던 그때 그 시절, 나는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씩은 밤늦은 시간에 독서실에 다녀오다가 성당에 들러 기도를 드리고는 했다. 물론 어두운 성당에 홀로 들어가는 것이 무섭기도 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계신데 뭐가 무섭냐며 성당에 들어가 그것도 맨 앞자리에서 기도를 드렸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다가 한 번은 제대에 올라가 감실 앞에 누워서 잠을 잤던 적이 있었다. 그렇게 얼마간을 자고 일어나 제대에 있는 종을 울리기도 하면서 난 마음을 다잡고는 하였다. 아무도 없는 성당 감실 앞에서 자고 일어나면 참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성당에 종을 치고 종의 울림을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는 했다. 그 이후로 시간이 나면 난 감실 앞에 가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드리고 피곤하면 자기도 하고, 자다 깨면 종을 치고 종의 울림을 듣고는 했다. 마치 누군가가 나를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았다. 가지 않으면 가고 싶고, 귀찮고 피곤한 마음에 가지 않으면 마음이 찌부등 했다. 언젠가 신학교 개강 피정 중에 지도 신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다. 당신께서는 매일 성체 조배를 하고자 노력하는데 가끔씩 신자들과 자리가 늦어지게 되어서 성체조배를 하기가 어려울 때는 아예 이불을 싸가지고 성체조배실로 간다는 것이었다. 그곳에서 이부자리를 펴고 잔다는 것이다. 난 그렇게는 아니지만 감실에서 잠을 자던 경험이 있던지라 신부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체조배 수면 동지를 만난 것만 같았다.

길바닥이 돌밭이 되고 돌밭이 가시덤불이 되고, 가시덤불이 다시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매일 예수님을 만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자주 듣는 말이지만 큰 노력이라기보다는 일상의 작은 노력과 습관이 길밭 같은 마음을 좋은 땅으로, 돌밭 같은 마음을 좋은 땅으로, 가시덤불이 많은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그곳에서 열매가 자라게 만든다.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10분만 시간을 내면 되는데 왜 그렇게도 어렵고 멀게만 느껴질까? 신앙인이 아닌 분들도 명상이 좋다고 하여 매일 명상을 하는 판에 우리는 뭐가 부족한 것일까? 24시간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만나려는 작지만 쉼 없는 노력이 우리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예수님! 기다리세요. 제가 지금 갑니다.

(수원교구 7월 소공동체지에서 발췌)

공지사항

※ 여름 방학을 맞이하여 성실한 미사 참례와 신앙생활을 위해 모든 공동체가 함께 노력합시다.

‘읽고 푸는 성경퀴즈’

◈ 이 달에 읽을 말씀: 사무엘기 하권 **16-20**장

◈ 성경 문제

1. 다윗 임금이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사울 집안의 친척 시므이가 마중나왔는데 시무이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16,5)

2. 다윗이 산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치바가 안장 얹은 나귀 한 쌍에 싣고 온 음식이 아닌 것을 하나 고르시오? (16,1)

   1) 포도주 한 부대
   2) 빵 이백 덩이
   3) 건포도 백 뭉치
   4) 치즈 두 부대

3. 괄호 안에 알맞은 단어를 써 넣으시오. (16,18-19)
   압살롬이 (　　)에게 물었다. “이것이 그대의 (　　)에 대한 충성이오? 그대는 어찌하여 (　　)을 따라가지 않았소? (　　)가 압살롬에게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저는 (　　)과 이 백성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뽑은 바로 그분께 속한 몸이니, 그분과 함께 머무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누구를 섬겨야 하겠습니까? 그 분의 (　　)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부왕을 섬겼듯이 이제는 임금님을 그렇게 모시겠습니다.”

4.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을 때 머리카락이 어느 나무에 걸렸습니까? (19,9)
   1) 소나무
   2) 향엽나무

5. 다윗이 떠나서 돌아올 때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아입지 않고 기다린 사람은 누구입니까? (19,25)

◈ 말씀과 생활 나누기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자애로운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는 우리는 과연 자신이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뚜렷한 자기인식과 신뢰에서 오는 이러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무의식중에라도 하느님을 언제 재앙을 내릴지 모르는 막강하고 두려운 존재로 여기는 데서 오는 불합리한 두려움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그분을 섬겨야 한다는 노예의식을 가졌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다. 참된 신앙은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를 준다. 우리가 진실로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살고 이웃과 화목하여 사랑받고 있음을 겸허하게 인식할 때 자유와 평화는 순수해지고 하느님(성체)을 내 안에 모시는 일이 큰 기쁨이 될 것이다.

소공동체 기도문

○ 하느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모였사오니 여기 모인 모든 이들과 이 가정에 강복하여 주십시오.

● 주님, 저희는 오늘 소공동체 모임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공부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 합니다.

○ 주님께 청하오니 저희와 함께 하시어 엠마오 제자들에게 하신 것같이 저희에게도 이루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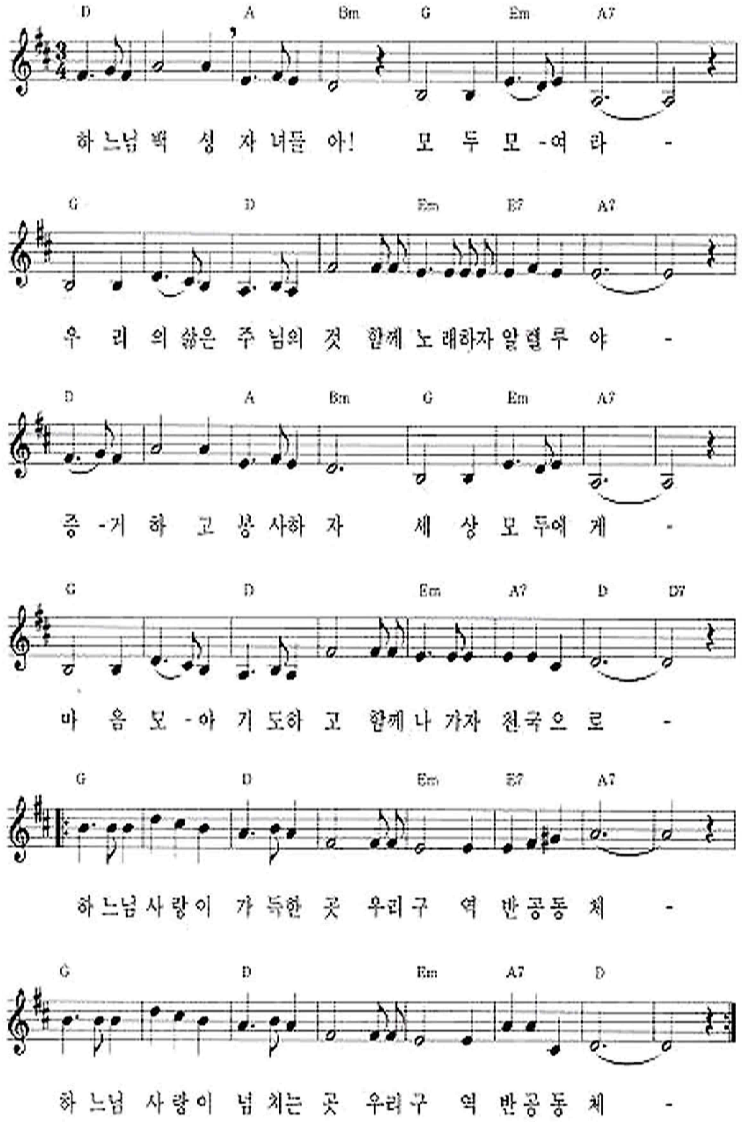
●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빵을 나누듯이 나눔의 생활을 할 때마다 저희의 영적 눈이 밝아져 저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알아 뵙게 하여 주십시오.

○ 문을 닫아걸고 무력함과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신 주님, 저희에게도 성령을 보내 주시어 기쁨과 확신에 넘쳐 주님을 전파하며 주님을 위하여 고통을 받는 것도 기쁨으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 그리하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소공동체가

작사 현 정 수
작곡 현 정 수

기도하며...